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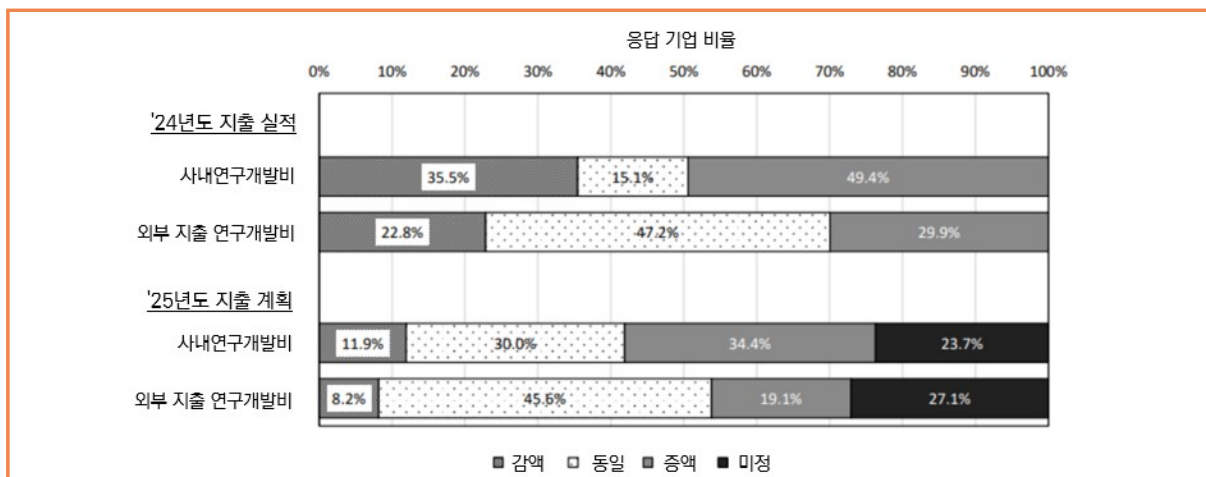
2 일본 NISTEP, '민간 기업 연구 활동 조사보고서 2025' 발표

⇒ 일본 과학기술·학술정책연구소(NISTEP)는 민간 기업 연구개발(R&D) 활동 현황과 관련한 다양한 기초 데이터를 제시하는 연례 조사보고서* 발표('26.6)

* 民間企業の研究活動に関する調査報告2025

- (개요) 보고서는 일본 민간 기업들의 ▲R&D 투자 ▲연구 인력 확보 ▲혁신 성과 활용 ▲특허 ▲외부 협력 ▲R&D 지원 정책·제도 활용 현황을 추적·정리
 - 일본은 과학기술 정책 및 혁신 정책의 입안·추진에 활용하기 위해 통계법에 근거하여 매년 민간 기업들의 R&D 활동에 관한 조사를 실시
 - '25년 조사는 자본금 1억 엔 이상인 사내에서 R&D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3,922개사(모집단) 가운데, 1,910개사(표본)로부터 응답을 수집해 분석
 - ※ 조사는 '25년 8월 우편 또는 온라인 방식으로 수행되었고, 연구개발비 등 재무 항목은 '24 회계연도를, R&D 인력 등 인사 항목은 '25년 3월 말 기준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수집
 - 조사 결과, 전체적으로 민간 기업들의 R&D 투자와 인력 채용은 증가 추세이고, 신사업 관련 R&D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으며, 대기업·대학·스타트업과의 연계 및 세제·보조금 활용이 R&D 활동의 중요한 축인 것으로 확인
- (R&D 투자) '24 회계연도 주요 업종*에 대한 사내 연구개발비는 기업당 평균 29억 9,224만 엔, 외부 지출 연구개발비는 평균 8억 1,038만 엔으로 집계
 - * 조사 참여 기업의 대표 업종
 - '25년에는 사내 연구개발비를 증액할 계획인 기업이 가장 많았고(34.4%), 외부 지출 연구개발비는 전년과 같이 유지한다는 응답이 다수(45.6%)

〈 민간 기업들의 연구개발비 증감 현황 및 계획(전년도 대비) 〉



출처 : 民間企業の研究活動に関する調査報告2025

- **(연구 인력 확보 현황)** 전체 기업당 평균 R&D 인력 수는 145.9명이지만, 자본금 100억 엔 이상인 기업의 R&D 인력은 평균 628.7명

〈 자본금 규모에 따른 R&D 인력 고용 기업 비율 및 인력 수 〉

자본금 규모별 기업 그룹	기업 수	R&D 인력 고용 기업 비율	기업 수	R&D 인력 수	
				평균값	중앙값
1억 엔 이상 10억 엔 미만	909	98.3%	894	37.3	13.0
10억 엔 이상 100억 엔 미만	600	98.3%	590	67.4	27.5
100억 엔 이상	300	99.0%	297	628.7	194.0
전체	1,809	98.5%	1,781	145.9	23.0

- '24년도에 신입과 경력직을 모두 포함해 R&D 인력을 채용한 기업 비율은 56.9%로 전년도(54.6%) 대비 증가
- 학사·석사 학위 소지자를 채용한 기업 비율이 전년도보다 소폭 증가한 반면, 박사 학위 소지자 채용 기업 비율은 약간 감소해 10.6%를 기록
- 여성 인력을 채용한 기업 비율은 29.5%를 기록
- 신입 연구자를 채용한 기업 비율은 45.2%로, '11년 이후 4번째로 높은 수준이며, 경력 연구자 채용 기업은 '20년 이후 4년 연속 증가해 34.3%를 기록
- R&D 인력 확보 조치로는 학부생 대상 인턴십을 활용하는 기업(58.9%)이 가장 많았고, 유료 직업소개사업소를 활용하는 기업 비율(57.3%)도 높은 편
※ 그밖에 기업들이 인력을 확보하는 방법은 석사과정 학생 대상 인턴십(45.6%), 대학 제휴(19.1%), 박사과정 학생 대상 인턴십(15.8%), SNS를 활용한 채용(14.2%) 순으로 조사
- 박사급 연구자를 모집 및 채용하는 기업의 비율은 35.5%였고, 현재는 없지만 적합한 인재가 지원할 경우 박사급 연구자를 채용하겠다는 기업 비율은 42.2%로 조사
- **(혁신 성과 활용)** 기업들은 R&D를 통해 주로 기존 기술을 일부 개량해 새로운 제품·서비스를 도입하거나(75.9%), 기존 생산공정·배송방법을 개선(56.7%)
 - R&D를 통해 아주 새롭거나 대폭으로 개선한 제품·서비스를 도입한 기업은 27.4%, 새로운 생산공정·배송방법을 도입한 기업은 19.1%로 집계
- **(특허)** '24년 기준 기업당 일본 내 특허 출원 건수는 평균 53.8건이며, 자본금 100억 엔 이상인 기업의 경우에는 평균 226.7건을 기록
 - 자본금이 큰 기업일수록 국내 특허, 국제 특허, 외국 특허 출원 건수의 평균값과 중간값이 모두 높아지는 경향

〈 자본금 규모에 따른 특허 출원 건수 〉

자본금 규모별 기업 그룹	국내 출원 건수			국제 출원 건수			외국 출원 건수		
	기업수	평균값	중앙값	기업수	평균값	중앙값	기업수	평균값	중앙값
1억 엔 이상 10억 엔 미만	566	5.8	1.0	473	1.2	0.0	480	4.8	0.0
10억 엔 이상 100억 엔 미만	492	14.3	5.0	426	3.1	0.0	411	10.9	1.0
100억 엔 이상	270	226.7	69.0	261	64.4	9.0	256	259.9	44.0
전체	1,328	53.8	4.0	1,160	16.1	0.0	1,147	63.9	1.0

- **(외부 협력)** '24년 기준 기업의 77.4%는 주요 업종 관련 R&D를 위해 다른 외부 조직과 협력한 경험을 보유
 - 기존 사업을 위한 R&D에서는 주로 대기업(60.5%)과 많이 협력하지만, 신규 사업을 위한 R&D에서는 국내 대학(44.5%)과의 협력이 다수를 차지
 - ※ 기존 사업을 위한 R&D 시 대기업 외 협력 대상은 대학(57.8%), 중소기업(46.9%), 공공 연구기관(35.6%), 외부 컨설턴트/민간 연구소(27.2%), 스타트업(15.6%) 순이었고, 신규 사업을 위한 R&D 시 대학 외 협력 대상은 대기업(36.5%), 중소기업(28.9%) 공공 연구기관(28.4%), 외부 컨설턴트/민간 연구소(24.2%), 스타트업(21.2%) 순
 - 인수합병(M&A)을 실시한 기업 비율은 9.2%, 자본제휴·자본참가·출자확대를 실시한 기업의 비율은 7.5%로 집계
 - 인수합병의 목적으로는 '기존 사업 확대'(6.8%), '신규 사업 추진'(2.1%), '스타트업(신성장 전략) 대상 투자'(0.5%) 등이 지목
 - 자본제휴·자본참가·출자확대 목적으로는 '기존 사업 확대'(4.5%), '신규 사업 추진'(3.3%), '스타트업 대상 투자'(3.0%) 순으로 집계
- **(정책·제도 활용)** 다수의 민간 기업들이 R&D 지원 세액 공제나 보조금과 같은 제도를 활용 중
 - '일반 시험연구비 세액 공제^{*}'나 '중소기업 기술 기반 강화 세제^{**}'를 이용하는 기업의 비율은 40.6%였고, '오픈 이노베이션형 세액 공제^{***}' 이용 비율은 8.5%
 - * 시험연구비 총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출된 금액을 당기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
 - **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등이 일정 수준의 시험연구비를 지출한 경우에 그 일부를 법인세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제도, 공제율이 12%~17%로 높게 설정된 것이 특징
 - *** 기업이 대학이나 국가 연구기관, 타 기업 등과 공동연구나 위탁연구를 할 때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법인세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제도, 자사 단독 연구개발 세액 공제와 별개로 운영
 - R&D 보조금·위탁비 지원제도 이용 비율은 17.7%로 집계

출처 : 일본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(NISTEP) (2026.6.24.)
<https://nistep.repo.nii.ac.jp/records/2000298>